

# 광주 달동네 양동 발산마을, 별뜨는 예술마을로

### 공·폐가 매입 게스트 하우스·예술창작공간 만들어

### 광주시, 85억원 투입 ... 문화전당 연계 관광자원화

광주의 달동네인 양동 발산마을에 예술을 끌어들이 새숨을 불어넣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특징지역에서 예술을 바탕으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광주시는 20일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 서구 양동 3동 발산마을에서 '발산예술마을 조성사업 선포식'을 열었다.

사업 내용은 공·폐가가 무려 21채에 달하고 홀로 사는 1인 가구도 10채나 되는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마을을 '별이 뜨는 발산예술마을'로 가꾸는 것이다.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85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예술재생 커뮤니티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발산마을을 부산 감천 예술마을 같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시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단계적으로 발산마을에 있는 공·폐가 21채를 매입한 뒤 예술인 창작공간과 게스트 하우스, 방문자 지원센터, 공동작업장 등을 만들 예정이다. 이들 창작공간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활동하면서 마을주민들과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문화공동체는 각종 예술작품 만들기 와 벽화 그리기, 예술 체험교실 운영, 마을이야기 스토리텔링 등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마을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발산 예술마을에 성장동력을 제공

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광주에 술마를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주민과 예술가들이 참여해 아

트마켓, 체험공방, 예술교실, 베품시장 등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는 공동체다. '광주예술마을 육성지원 조례'에는 발산마을 창작공간 입주 작가에게 창작공방 구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발산예술마을'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해당 마을이 고지대에 있는 점

을 감안, 정상으로 오르는 1개 도로와 2개 골목길에 환경조형물과 LED조명을 설치해 매력적인 야경을 만든다는 게 골자다.

강운태 시장은 선포식에서 "예술을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이 삶에서 문화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이 20일 서구 양동 3동 발산마을 '발산예술마을 조성사업 선포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다도해 명소화 운영계획

시기	대상 섬	주요 프로그램
3월	신안 비금도, 도초도(1박2일)	·비금 대동염전/해안일주도로/하트해변
4월	여수 거문도, 백도(2박3일)	·거문도 뱃노래, 갈치 경매, 섬탐상길지, 삼지
5월	신안 흑산도, 영산도(2박3일)	·다도해 절경과 남도의 진한 맛 흑산도·영산도 여행
6월	여수 개도(1박2일)	·개도 마걸리 주조장, 멸치잡이 체험, 몽돌 건조장 견학 등
7월	영광 송이도(1박2일)	·영광굴비발상/영광 백수해안대로/노을 전망대
8월	목포 외달도(1박2일)	·몽돌해변/유립정원/해안둘레길 트레킹/해수욕장
9월	고흥 상·하화도 거문도(1박2일)	·상하화도 갯벌 체험과 섬 트레킹
10월	완도 노화도(1박2일)	·전복체험/개마기 전통어로체험/예술리 해수욕장
11월	진도 가사도(1박2일)	·진도 민속공연/진도 멸치잡이 체험

## “섬으로 힐링·체험관광 떠나요”

### 29일 비금도·도초도 시작

### 전남도 다도해 명소화사업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도해 명소화사업이 오는 29일 신안 비금도·도초도를 시작으로 올해 일정에 들어갔다. <표>

다도해 명소화사업은 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역사 자원을 엮은 이야기(스토리텔링)로 설명하고, 현지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밥상, 전통공연 체험 등을 통한 힐링·체험 관광을 주로 하는 여행상품으로 섬에서 숙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28개 섬에 39차례에 걸쳐 3000여명의 관광객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마니아층 25명은 '다도해 섬 여행 서포터즈'로 위촉돼 SNS, 동호회 등에서 섬 여행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지역 섬 여행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참가자 모집 광고도 하기 전부터 신청 문의가 쇄도, 올해엔 1차 여행 추진 후 2차 여행부터는 여행사를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3월 신안 비금도·도초도를 시작으로 4월 여수 거문도·백도, 5월 신안 흑산도·영산도, 6월 여수 개도, 7월 영광 송이도, 8월 목포 외달도, 9월 고흥 상하도·하화도, 10월 완도 노화도, 11월 진도 가사도 등 총 9차례 매달 넷째 주에 1박2일은 토~일요일, 2박3일은 금~일요일에 운영된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관광객들이 상시 섬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남 명품섬이 가진 생태 문화적 가치를 여행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 인도양서 실종 말레이機 추정 물체 발견

### 호주해상안전청, 인공위성 사진 포착 ... 수색 활기

호주가 주도하는 인도양 남부 실종 여객기 수색에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대형 물체 2개가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돼 수색이 활기를 띠고 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는 20일 수도 캔버라 의회에서 “실종 여객기 수색과 관련해 새롭고 믿을만한 정보가 밝혀졌다”며 “호주 해상안전청(AMSA)이 위성사진을 분석해 2개의 물체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공군 소속 오리온 수색기가 이 물체를 찾고자 현장으로 급파됐다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이밖에 공군 항공기 3대가 추가로 파견됐으며 미국의 최첨단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민간 선박 1척도 수색에 나섰다.

호주해상안전청은 2개의 물체 중 하나는

길이가 약 24m, 다른 하나는 5m 정도이며 서호주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 수색에 나선 미국 해군 P-8A 포세이돈 초계기의 한 승무원도 수색 영역으로 정해진 해상에서 레이더에 ‘상당한 크기의 물체’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히사무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겸 교통장관 대행은 이에 대해 “호주 정부의 발표는 실종 항공기 수색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단서”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와 선박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색범위가 여전히 넓어 수색대가 물체를 발견, 이것이 실종 여객기 잔해인지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 미국 연방항공국(FAA) 항공전문가

마이어 대니얼은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된 물체가 실종기 잔해인지 확인하는데 최대 48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색대가 이 물체가 실종 여객기 잔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제일 먼저 음파탐지 부표를 해당 지역에 투하해 블랙박스가 송신하는 신호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양의 경우 가장 깊은 해역의 깊이가 3000~4000m에 달해 실종된 여객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가 해저에 가라앉아 있을 경우 이를 찾아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MH370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새벽 비행하던 중 연료가 끊겨 13일째 사고 여부와 비행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2심 당선무효형 배기운 대법원 27일 최종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27일 이뤄진다.

대상자는 민주당 배기운(64·나주·화순) 의원과 새누리당 선원준(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다. 대법원은 두 의원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각각 배당됐으며 선고 기일은 27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선고 시각은 배 의원 사건이 오전 10시20분, 선 의원의 사건이 오전 10시다.

배 의원은 2012년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도 징역 8월에 집유 2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 된다. /연합뉴스

## 지방선거 공약, 유권자가 직접 제한하세요

### 선관위, 희망공약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건전한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유권자 중심의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관위는 유권자가 제안한 우수 공약을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으로 엮어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다음달 16일까지, 2차는 다음달 17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다. 우수 공약은 4월23일과 5월 28일 각각 발표

하며,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을 심사·선정해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될 경우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한다.

누구든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에 접속해 희망사항을 공약으로 제안하면 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들이 직접 자신의 학력, 경력, 출마의 변, 공약 등을 게시해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나의 후보자다' 코너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29P - 10/12/13층, 3세대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

## 53P - 9/13층, 2세대,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권리분석 등 정보 제공